

# 송영길·홍영표·우원식 '호남 구애'... 與 당권 경쟁 '가속'

### 5월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 내년 대선·지방선거 지휘 '권한 막강' 주자들, 각종 현안에 강성 메시지... 광주·전남 순회하며 표발같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점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 9일 이전에 대표

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는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2022년 3월9일) 1년 전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직에서 사퇴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내달 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는 4·7 재보선 이후 5월 중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권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고,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당원 모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주요 선거 국면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당원 가입도 붐몰을 이루고 있고, 당 대표 경선이 본격화 하면 당원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당권주자들의 행보가 본격화 하면서 지역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를 뽑는 경선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유·불리도 엇갈리기 때문이다. 대권 경선에서도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대권 주자 진영에서도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송영길(5선)·우원식(4선)·홍영표(4선) 의원의 3파전 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들 주자들은 벌써부터 각종 현안에 강성 메시지를 던지며 '진문' (진문재인) 당원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최대 표발인 호남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 민심 잡기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은 지난 19일 광주를 방문해 이용섭 광주시장, 5개 구청장, 시구의회의 의원들을 만났다. 당 대표

공식 출마에 앞서 지역을 순회하며 출마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지난주에는 전남을 찾아 단재장, 지방의원, 당원들을 만났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4~15일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이용섭 시장·김영록 전남도지사과 면담하고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홍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지역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호남 출신인 송 의원은 고향인 광주와 전남을 수시로 찾아 텃밭을 다지고 있다. 송 의원은 다음 달 초 광주·전남을 다시 방문해 본격적인 표발같이에 나설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영선(왼쪽),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서울 성동구 레이더57 스튜디오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전문직 특혜 개선" 굳히기냐 뒤집기냐

###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의협 "총파업"·국민의힘 "의료계 장악" 민주 서울시장 후보 경선투표 D-4 박영선·우상호 막판 총력전

여야는 21일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지난 1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전문직군의 비상식적 특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서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

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느냐"며 "혹시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통 속이어서 그런 것이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의료계 장악까지 시도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금 의료계는 코로나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며 이 법안이 6·25 전쟁으로 치면 군인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현 정권은 의료계와 화합이 일전을 벌인다"며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투표가 21일 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의 사력을 건 막판 총력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두 후보는 네 차례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은 민주당 차원에서 열리는 온라인 합동 연설회가 진행된다. 이어 두 차례 라디오 토론회를 거쳐 25일 마지막 TV 토론회를 벌인다. 우 후보는 경선 투표의 50%를 차지하는 당심을 얻는데 두고 선명성을 앞세운 메시지로 박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 박 후보의 공약을 민주당답지 않은 개발 의제라고 비판한 데 이어 최근에는 수직정원 도시 공약을 두고 "모기가 들끓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가는 입장인 박 후보 측은 확신을 자제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투표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며 후보는 내달 1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이형석, 자치구 재정 확충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1일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27%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와 달

리 특·광역시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특·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행정안전부 권고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치구 재정 부족 문제와 함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용빈 "코로나 백신 접종 장소 확대해 분산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산갑) 국회의원은 21일 "백신 접종과 관련해,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장소를 대폭 확대해 분산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냉동보관을 해야 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33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정부가 확보한 전체 물량인 7900만 명분의 41%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모더나와 같은 냉동보관 백신은 훈련된 인력들만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장보관 백신과 달리 일반 위탁의료기관에 보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J&J얀센 백신을 접종하는 1만여 곳 이상의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서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도서지역이나 소규모 접종이 필요한 곳에도 기능성을 갖춰 어느 상황에서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콜드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철현 "해양관광 육성·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시갑)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에 해양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1일 주철현 의원은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해양관광 분야 사업이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만 추진되고, 법률이 없어 지지부진한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한국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리나

업, 수중레저업, 수상레저업 등 주요 해양레저 관광 서비스사업체별 매출액도 연평균 15.9~42.6%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6조 원 규모로, 5000여 개의 사업에 투자됐다. 이 중 해양관광 사업은 전체 사업의 2.6%인 143개 사업, 약 700억 원(0.4%)에 불과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